

나를 흠뻑 취하게 해주었습니다.

황포(과거에는 작은 어촌이지만 지금은 큰 항구와 공단이 있어서 발전적인 신 도시입니다)를 지나가면서 청도 해안을 끼고 돌아가는 해변의 도시가 매우 아름답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24년전.....갯벌이었던 이곳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니 나 또한 중국에서 늙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청도 시내의 호텔에 목사님은 약속 장소로 가고, 나는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하다가 겨울의 청도를 보고 싶어서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청도는 1900년도 청나라 말기에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고 개방이 되어진 곳입니다. 청도 여러 곳에 지금도 제국주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맨홀과 하수구를 지금 그대로 사용하는 곳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유명한 청도맥주는 독일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청도의 겨울 해변은 무엇인가 부족한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긴 해변을 걷다가 독에 앉아서 동쪽 끝을 바라보면서 한반도 생각을 하면서 사색에 잠겼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매섭고 차가운 바람에 온 몸이 얼어서 해변에 있는 것이 초라할 듯 하여 작은 중국 식당에 갔습니다. 작은 식당에는 몇 가지 음식만 가능하여 청도 특산물 조개볶음과 해삼볶음, 감자채소를 시켜놓고 고량주를 잔에 채웠습니다.

청도는 25년전에 나의 젊은 청춘이 잠시 머물렀던 동네입니다. 수교되기 전부터 홍콩을 통하여 다녔던 중국에서 3번째 체류하게 된 동네입니다. 고량주가 한잔, 한잔 목을 넘어가면서 보고픈 얼굴들과 그때 아련했던 그리운 추억과 아픈 마음들이 술과 같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초라한 술 집이라서 그런지 7시 30분이 넘어가면서 한 쌍만 남고 가게는 허전했습니다. 바다 바람 소리만 문틈으로 들어오면서 그리움이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